

종교의식의 종교교육적 구조와 과정¹⁾

이 재 영

(선문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적 사고에 의하여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종교의식(宗教儀式)의 교육적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현대의 종교교육의 문제점은 학교형 교수-학습의 패러다임(paradigm)을 따르는데 있다. 종교교육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믿으며 결단하고 행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식의 이해와 양을 중시하는 학교형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을 적용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종교의식에는 감추어진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 있다. 의도되고 계획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종교의식에 참여하므로 종교적 인간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즉 교육적 과정이 일어난다. 본 논문은 종교의식이 종교적 인간상을 형성하고 종교적 생활방식을 형성하는 교육적 구조와 과정을 논증하고 있다.

I. 서론

현대를 정보화 시대, 자동화 시대, 대량생산과 소비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과학적 진보와 대량 생산에 의해서 인간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은 부

1) 여기서 구조란 교육이념이나 이론적인 기초를 말하고 과정(過程)은 그 이념이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process)을 말한다.

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문명의 근저에는 비인간화의 사상과 실상이 바탕이 되고 있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인간의 삶의 터전인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인간은 소유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인간의 존엄성은 추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비인간화를 주도하는 사상을 물신주의(物神主義)라고 할 수 있다. 물질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실현 시켜준다는 물신(物神)의 유혹에 의해 인간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물신의 조종을 받는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물신의 더 많은 보호와 혜택을 받기 위해 사람을 물질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경쟁자로 대하고 있다. 여기에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등의 대중 매체는 물신의 충실한 포교사가 되어 인간을 물신 앞에 굴복하게 만든다.

물론 이러한 비인간화의 현상은 인간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 인간의 각자의 의지로 물질에 조종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간이 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요 물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다. 그러나 물신의 굴레를 벗어나 물질로부터 자유인이 되고 물질에 대해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기에는 물신의 힘이 너무 강하고 유혹이 너무 매혹적이다. 사회의 구조가 견고한 물신의 조직과 관리체제로 되어있어 인간이 이 굴레를 벗어나기에는 너무 심한 면역 결핍증에 걸려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 물신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야 할 사회 기관이 학교요, 종교이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와 종교가 과연 인간을 물신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의 학교와 종교는 오히려 물신주의에 편승해서 물신에 대한 신념만을 더 강화해 주는 비인간화의 현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오늘의 학교교육을 보자. 학교교육은 외적으로는 인격함양이라는 교육 목표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갓 구호에 불과할 뿐이고 물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 남는 경쟁의 원리만을 가르쳐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할 중·고등학교는 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였고, 사회의 참다운 지도자를 교육하여야 할 대학은 기술인을 만들어 내는 기술 양성소로 전락하였다.

오늘의 종교는 어떠한가? 많은 종교 가운데 물신주의에 편승해서 개인의 기복을 위해 종사하는 종교가 있다. 개인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기도를 해 주고 제사를 드러주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물질을 헌납하는 것이 구원의 길에 가

깝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다.

인간이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종교가 존재하게 되었고 종교는 죄로 인해 비인간화된 인간의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종교는 비인간화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처방으로 사랑, 자비, 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랑, 자비, 인의 개념은 관계의 경험에 의해 나온 개념으로 더불어 살 때만이 인식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건전하지 못한 종교는 개인주의와 기복주의(祈福主義) 신앙을 위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사랑과 자비, 인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한 방식으로 종교는 저마다의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다. 종교의식을 통해 그들의 종교적 주제들을 표현하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다. 따라서 종교의식은 종교교육의 중요한 교육적 국면이 된다. 본 연구는 종교의식의 교육적 의미를 재인식하고 종교의식이 종교적 인간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적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II. 종교교육의 문제와 종교의식의 재인식

1. 학교형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종교교육의 문제

오늘의 종교교육의 문제는 기복주의 교육, 개인주의 교육, 문자주의 교육, 말 중심 교육 등 편파적 교육으로 치우치고 있다. 종교교육이 전인적 인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종교교육은 기복주의 교육보다는 책임교육, 개인주의 교육보다는 공동체 교육, 문자주의 교육보다는 정신주의 교육, 말 중심 교육보다는 생활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종교교육학자 웨스터 호프(John Westerhoff III)는 “오늘의 종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교육이 학교형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Westerhoff III, 1976: 6)라고 하였다. 오늘의 학교교육은 점점 인간화를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 되어가고 있다. 학교교육은 참다운 인간성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 불평등한 현실을 객관화 시켜주는 교육으로

전략하였다²⁾. 참다운 지식인을 기르기보다는 지식의 양을 중시하고, 인간성의 성숙보다는 업적과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이다.

오늘의 한국의 종교교육 현장도 대부분 학교형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 이 학교형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이 오늘의 종교교육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종교교육자들은 별다른 반성 없이 학교형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을 종교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교육은 교리를 주입시키고 그 종파의 충실한 교인 만드는 것이 종교교육의 목표이다. 교육의 방법에서도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사중심의 교육이요, 주입식의 교육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방법은 대부분 인간의 이성애 호소하는 교사의 말에 의한 교육 방법이다.

종교교육이란 어떤 종교 기관이 표방하는 참 인간성을 형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하는 과정이다. 학교교육은 지식을 이해하고 머리에 저장하는 것으로 그 교육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종교교육은 이해해서 저장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고 믿으며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방법은 학교형 교수-학습의 과정처럼 교사는 가르치는 기계요, 학생은 배우는 기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진리를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안내자요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종교교육은 참여와 만남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종교적 진리란 어떤 명제로 나타내거나, 서술된 문장이거나 객관화된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 참여하는데서 이해되고 수용되는 실재이다. 따라서

진리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와 만나서 진실하게 대화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종교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는 신, 사후의 세계, 극락, 천국 등 초월적인 것들이다. 유한성을 가진 실존의 인간으로서 이러한 주제들을 논리적인 설명으로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주제들은 상상력에 의해서, 대화를 통한 간접적 경험에서, 또는 상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경험의 나눔과 상징, 또는

2) 이와같은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탈학교 사회」를 쓴 일리치(Ivan Illich), 「학교는 죽었다」를 쓴 라이머(Everett Reimer)의 교육사상에 나타나 있다.

상상력을 통해 이미지(image)화 하고 그것을 개념화하므로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의 종교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다. 종교의식은 상상하고 상장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나누는 종교교육과정의 중요한 국면이 된다. 종교의식에는 미국의 웨스터 호프가 말하는 숨겨진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Westerhoff III, 1976: 16)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므로 그 종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들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 속에 내면화되는 것이다.

2. 종교적 인간성 형성을 위한 종교의식

미국의 종교 교육학자 웨스터 호프(John Westerhoff III)는 “인간은 본래 의식(儀式)을 위해 창조되고 또한 의식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Westerhoff III, 1976: 55)라고 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의식과 연결되어 살고 있는 존재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이 있고 성장하면서도 의식으로 삶의 단계들을 매듭지으며 생을 마감하면서도 의식으로 마감한다. 이러한 면에서 하비 콕스는 그의 저서 바보제에서 인간을 제축인(Homo Festivus)이라고 하였다(Cox 1977: 23). 인간은 본질적으로 축제와 의식을 갖는 존재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제축을 멀리하므로 우리의 생활을 아주 따분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신성(神聖)과 운명을 파악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대인이 의식을 멀리하는 것은 과학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의식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돌려버리고 대부분의 의식을 말살시키고 있다. 인간의 중요한 본질인 의식을 멀리하므로 편벽 되고 건조한 삶을 살고 있으며 산업사회에서 기계처럼 조종되고 조직의 노예로서 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종교의식을 멀리하는 현대인들에 대해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현대인은 자신을 오로지 역사의 주체 및 역군으로 간주하며 초월을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양한 역사적 상황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인간 조건의 바깥에 있는 인류를 위해 어떤 모델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자

신을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과 세계를 탈 신성화시키는 정도에 비례해서만 그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Eliade, 1987: 202-203).

인간이 의식을 멀리함으로 잃은 것이 많다. 오늘의 개인주의 사회와 인간 소외 현상도 의식을 멀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너와 내가 하나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배우며 전승해 주는 기능을 가진 의식을 멀리함으로 인간은 더 소외되고 개인주의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인간에게 같은 신념과 같은 행동의 양식이 있어야 너와 내가 하나임을 느끼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이러한 같은 신념과 행동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의식이다. 이를테면 제사의식은 가족 친척들이 서로 만나고 한 혈육임을 느끼고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제사를 미신으로 돌리고 멀리하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더라도 핵가족 단위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잃은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종교교육의 목적이 한 종교의 종교적 인간상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삶의 양식을 배우며 전승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종교의 의식은 인간화를 위한 종교교육의 중요한 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의식이 종교교육의 최선의 길이거나 종교교육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의식이 한 종교가 추구하는 인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한 과정(過程)임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종교의식이 종교교육의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종교교육의 과정으로서의 종교의식

1. 감추어진 커리큘럼으로서의 종교의식

교육적 개념으로 말하면 종교의식 안에는 감추어진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이 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종교의식 안에는 인간을 변화시키

고 종교적인 주제들을 구현해 주는 커리큘럼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종교의 주제가 이해되어지고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종교교육의 접근 방법에는 이성적인 설명에 의한 방법이 있고, 감정에 의하여 느끼는 방법이 있으며, 실천의 과정에서 체험하는 과정이 있다. 현대의 종교교육의 접근 방법은 학교형 교수-학습 패러다임대로 이성에 의해 설명되는 방법이 주된 방법이었다. 즉 주로 설교 혹은 설법, 강연에 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식은 감정에 의해 느끼는 과정과 실천에 의해 체험하는 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도되고 계획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종교의식에 참여하므로 종교적 주제들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며 종교적 결단을 하게 된다.

종교의식에는 교육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세 가지의 국면이 있다. 하나는 종교의식 자체에는 그 종교의식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표상이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종교의식의 자체 안에는 종교의식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상이 있다. 이 표상들이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주제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 준다. 종교의식은 종교적 주제들을 표현하는 드라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주제들을 표현하고 관객들은 이 주제들을 자기의 삶에 내면화시키는 것처럼 종교의식도 종교적 주제들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인간을 변화시키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곳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임재하고 그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성화(聖化)된 시간, 성별된 장소, 성별된 매개물 가운데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는 어떤 초월적 존재의 힘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초월적 존재의 힘은 엘리아데가 말하는 성현(聖顯: hierophany)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Eliade 1987: 11). 종교의식이 드라마와 다른 것은 이 거룩한 힘을 나타내는 성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현이 없다면 종교의식은 하나의 소설(fiction)을 드라마화 한 것에 불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의식으로부터 교육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종교의식에 참여한 자들의 관계이다. 종교의식은 한 종교가 신봉하는 초월자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을 나타내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 맺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참여하므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

고 공동체의 삶을 전수 받게 된다. 종교의식에의 참여는 같은 진리 안에서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지 혹은 가족으로서의 만남이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신봉하는 주체자와의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2. 종교의식이 갖는 교육적 기능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이상으로 하는 인간형이 있다. 그리고 이상형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의식은 궁극적으로 이 이상형의 인간 형성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의식은 인간을 형성하는 감추어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의식에 어떠한 감추어진 교육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 보겠다.

첫째, 종교의식은 자기동일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종교교육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적 인물과의 동일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독교는 예수와 같은 인간형, 불교는 석가모니와 같은 인간형, 유교는 공자와 같은 인간형을 추구한다. 종교적으로 인간화란 그 종교의 창시자의 삶을 닮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시자의 삶을 닮게 하기 위하여 그 창시자의 삶을 재연하는 어떤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다. 창시자의 태어남과 구속사적인 삶,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어떤 거룩한 날들이 정해진다. 이 거룩한 날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창시자의 창조 사건과 구속적 사건을 재연한다. 사람들은 이 날에 참여하므로 자신의 재창조와 구속(救贖)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동일한 신화적 사건의 재연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된다”(Eliade, 1987:)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 재연되는 의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고 창시자의 모델적 삶을 닮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종교의식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종교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그 종교의 진리 혹은 진리의 주체자와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를 전달하는 종교교육의 방법에는 (1) 언어를 통한 진리의 전달, (2) 느낌을 통한 전달, (3) 상징을 통한 전달, (4) 만남과 참여를 통한 전달 등 네 개의 차원이 있다(은준관, 1982: 13-15). 종교의식은 이 네 차원의 전달 방법을 수용하고 있다. 종교의식

의 그 자체는 바로 상징 언어가 되어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또한 종교의식은 준비된 환경과 분위기 안에서 표상으로 나타내는 상징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진리 혹은 진리의 주체의 공통적 표상을 제공하는 종교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사람 혹은 어떤 도구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사람 혹은 도구는 진리를 표현하는 상징물이 되어 사람들에게 어떤 표상을 만들어 준다. 종교의식의 과정 중에는 이 상징물들이 만들어 주는 표상을 통해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셋째로 종교의식에는 공동체 형성의 기능이 있다. 종교의식은 한 종교가 신봉하는 절대자와 인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각각 다른 종교의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종교 의식 속에 양면의 관계를 포괄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참여하므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전수 받게 된다. 종교의식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은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결단하는 것이다. 어떠한 종교도 인간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 공동체적 존재임을 부인하고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종교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공동체적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공동체적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삶의 양식을 형성해 주고 있다.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참여하므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공유한다.

신앙인은 스스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 태도를 돌아 보게 될 때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신앙인은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고는 자신이 속한 종교의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 그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종교교육의 주체인 기관과 교사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의미 깊은 의식에 참여하게 하고 의식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이해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공동체를 평가하며 필요한 새로운 의식을 개발해서 표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

발적이고 기쁨으로 의식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IV. 종교의식의 유형과 교육적 자원

1. 종교의식의 유형

종교의식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듀르케임(Emile Durkheim)은 의식을 소극적 의식과 적극적 의식으로 분류하고 있다(Durkheim, 1915: Vol. 3). 소극적 의식은 금욕이나 금지사항과 같이 절제와 포기를 행하는 것이고, 적극적 의식은 헌납, 희생, 기도처럼 신앙생활 자체를 말한다. 소극적 의식은 적극적 의식을 위한 전단계이며 준비단계이고 사람들을 종교생활로 인도하기 위한 의식이다.

웨스터 호프는 종교의식을 공동체 의식(rite of community)과 삶의 위기의식(life crises rites)으로 나누고 있다(Westerhoff III, 1976: 54-59). 전자를 공동체를 위한 의식이라면 후자는 신앙인 개개인을 위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예배나 불교의 예불 등이 공동체 의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은 그 공동체의 진리에 대한 이해의 집약이며 삶의 방식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공동체 의식에 참여하므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배우며 공유하게 된다.

다음, 삶의 위기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기로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하고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확인하는 의식이다. 기독교의 세례, 종교의식 안에서의 혼례, 임종 등 공동체에서의 위치의 변화와 전환을 축하하고 확인하는 의식이 된다.

종교의식을 성(聖)과 속(俗)을 분리하는 거룩한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을 성화하는 성력에 의한 종교의식과 공간과 물질을 성화하는 성별의식 또 인간을 성화시키는 통과 의식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종교의식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겠다.

2. 종교의식의 교육적 자원(source)

1) 성력(聖曆)에 의한 종교의식

엘리아데는 시간을 거룩한 시간과 세속적 시간으로 나눈다. 그리고 종교는 제의라는 수단에 의하여 일상적 시간의 지속으로부터 거룩한 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제의는 거룩한 시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시간에 참여 시켜 거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거룩한 시간은 그 종교의 태초에 일어났던 사건을 재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성탄절 의식은 어떤 면으로든지 예수의 출현과 구원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고 불교의 불탄일은 석가 여래의 출현과 구도의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시간으로의 회기를 경험하고 자신의 재창조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의식에 참여하므로 그 종교의 창시자와 자기를 동일화하게 된다. 각 종교에서 행하는 신년의 의식도 그렇다. 신년의식은 우주창조를 재현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고 시간을 다시 출발시키는 의식이다. 사람들은 이 의식에 참여하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이러한 거룩한 시간에서의 참여가 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의 종말과 그것의 재창조에 제의적으로 참여하므로써 모든 인간은 그 시간과 동시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는 새롭게 태어나며 그의 탄생 당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활력소를 가지고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Eliade, 1987: 80).

성력에 의한 종교의식은 이처럼 세속적인 자신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재생을 경험하게 해준다.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지우고 새로운 태어남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와 무력함을 벗어나고 더 순수하고 자유로운 자신을 만들어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약속하게 된다.

2) 통과 의식

출생, 성년식, 결혼, 임종 등에 관련된 통과 의식은 종교적 삶을 사는 인간이나

무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양식이 된다. 통과의식이란 사람들이 기존의 역할, 신분 등으로부터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탈피하여 새로운 지위, 역할, 신분 등을 취하거나 기존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재가입하는 의식을 말한다. 통과의식은 이탈에 관련된 의식, 이행에 관련된 의식, 재가입에 관련된 의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탈의 단계는 기존의 역할 위치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이다. 불교에서 승려에 입문하면서 갖는 수계식, 기독교의 세례식 등이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의 역할 신분으로부터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탈피하여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는 의식이다.

다음은 이행의 단계에 관련된 종교의식이 있다. 이 의식은 이탈의 단계를 거친 사람으로 하여금 의례나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 지위, 역할을 출발하는 의식을 말한다. 여기에 속하는 의식은 금식, 고행 등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방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이다. 즉 옛 생활 습관,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생활자세를 갖추기 위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가입의 단계에 해당하는 의식이 있다. 이 단계의 의식은 기존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더욱 더 승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에 재가입하는 의식을 말한다. 기독교의 예배나 불교의 예불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종교적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생일의식, 결혼의식, 장례식 등도 이에 속할 것이다.

3) 성별의식(性別儀式)

대부분의 종교의식은 성별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마의식(除魔儀式)이나 성수의식(聖水儀式) 등과 같이 사람이나 물질을 성별 성과 속을 분리하여 성스러운 것으로 이행시키는 의식이다. 카톨릭에서 성수를 뿌리는 의식, 유대교에서 양피를 뿌리는 의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별의식은 민간신앙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줄을 매는 의식,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금을 뿌리는 의식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리하는 의식에는 소유를 결정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악의 소유로부터 거룩한 소유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위와 같은 의식을 미신적인 것으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하여 많은 것을 폐하고 말았다. 아이의 태어남은 다만 종족을 번식하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늘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아기의 출생의 의미를 새기고 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어떤 제의가 있다면 부모와 가족은 생명에 대한 외경과 새로운 가족구성원으로 깊은 애정을 더할 것이다. 결혼식도 그렇다. 과거의 우리 나라의 혼례는 단지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창출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부의 결합은 우주적인 결합이요 남녀가 한몸됨을 의미하고 새 가정과 종족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의례였다. 그러나 오늘의 혼례는 현대화되어 단지 성적 결합의 허용과 부부의 탄생의 의미를 선언하는 의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출생, 결혼, 사망 등의 중요한 통과 의식들이 제의적 성격을 상실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우주적인 가치, 거룩한 존재로서의 가치는 상실되고 단지 물질적 가치로서 인간을 평가하게 되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 출생한 후 봉헌식, 성인이 되는 입사식, 부부의 결합을 위한 성혼식, 장례식 등이 좀더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의례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들은 어떤 상업적 대리자들에 의하여 형식적이고 일과성의 행사가 아니라 종교적 기관이 수행하는 거룩하고 의미있는 의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생은 단순히 산모를 위로하는 축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아기는 그 사회 공동체의 소속이요 우주의 궁극적 존재 혹은 그 종교 기관에 소속된 자임을 확인하고 그를 봉헌하는 의례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사회 공동체 그리고 어떤 궁극적 존재에 소속된 아기를 위탁받았다는 서약의 의례요, 공동체의 일원임을 축하하는 의례를 통해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더욱 진지한 책임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자녀와 같이 동반 자살을 하고 자녀를 버리고 이혼을 하는 부모가 많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부모된 사람들이 의례 안에서 자녀의 공동체적 존재성과 우주적 생명의 분할체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입사식 혹은 성년식을 거행해야 한다. 청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제2의 탄생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정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독립된 존재가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과거의 삶을 부정, 혹은 이탈해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이행하는 의식이 있게 될 때 청소년들은 과거의 잘못된 삶을 폐기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설계와 결단을 갖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입사식을 가지고 있다. 종교에서의 입사식은 세속적 인간의 죽음과 거룩한 존재로의 부활 혹은 중생의 의식이다. 불타도 니르바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세속적 인간의 조건, 즉 노예 상태와 무지의 상태에서 죽고 다시 사는 방법을 가르쳤고 예수도 한 제자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성서 요한복음 3장 3절)”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형상화한 것이 종교의식이 된다.

인간에게 결혼식 또한 새로 태어나는 중요한 통과 의례이다. 성년식이 남성 혹은 여성의 어떤 한 성(性)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결혼식은 남녀 양성(兩性)의 합일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남녀가 합일을 하는 결혼식을 통하지 않고는 성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었다. 세계의 많은 민간신앙에서 본래 인간은 한 몸에 남녀의 양성을 가진 인간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 인간의 시조는 먼저 남자가 만들어지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본래 한 몸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결혼식은 남녀의 하나됨의 의미, 한 가정을 창출했다는 의미, 부모로부터 독립된 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각 종교에서는 결혼식을 중요한 의식으로 주재하게 된다.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적 혼례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한 가족을 창출하게 되고, 불교에서도 전세의 인연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통해 현세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가정을 창출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전통 혼례에도 남녀가 합일을 상징하는 합금례(合衾禮), 순결과 정조를 지키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러기 앞에 재배(再拜) 등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의식에서 재연하므로 의식이 주는 표상을 실재화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러한 종교적 의식을 탈신성화시키고 탈종교화시킴으로써 인간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절하하고

비인간화시키고 말았다. 아직까지 우리의 주변에서 종교의식의 잔재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퇴색하고 형식적인 의례가 되고 말았다.

3. 종교교육적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종교의식의 방향

종교의식은 종교적 구원의 행위이며 인간의 삶을 승화시키는 행위이다. 종교적 인간을 형성하고 종교적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종교의식은 종교교육의 중요한 국면이 된다.

종교의식은 인간이 구원행위를 묘사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연극이 연출자의 역할에 따라 연극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message)를 줄 수도 있고 메시지가 없는 연극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종교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에 따라 인간에게 구원 혹은 구도(求道)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무의미한 연극에 그치는 종교의식이 될 수도 있다.

종교의식이 인간의 구원과 성장에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형식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종교의식이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관계의 증진, 공동체의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의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을 중심으로 생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의 예전을 평가하며 계속적으로 의미 있고 필요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성장이 일어나는 의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집례자는 성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미 있고 활력 있는 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성과 축제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람들은 종교의식에서 재생이나 중생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경건함과 희열이 교차하는 감정상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종교의식은 경건성과 축제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 제의를 보더라도 경건한 제의와 함께 즐거운 놀이가 병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듀르케임은 “종교는 일상의 너무나 많은 구속으로 피곤해진 정신을 놀이 등으로 새롭게 해주는 것이 종교의 존재 이유다(Durkheim, 1915: 422)”라고 했다. 종교의식은 탐욕과 죄의식으로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의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스러움으로 마음을 정화

하고 축제성으로 해방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셋째로 종교의식과 식사(食)의 나눔은 분리될 수 없다. 대부분의 제의에서는 음식을 봉헌하고 그 음식을 참여자들이 나누어 먹는다. “식사는 인위적으로 혈연관계를 맺게 해준다”(Durkheim, 1915: 378)는 듀르케임의 말처럼 음식은 단순히 먹이의 차원을 넘어선다. 생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같은 기질을 갖게 해준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意識)을 고양하는데는 밥상을 같이 대하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독교 예배에서 사랑의 식사(Agape Meal)가 성례전의 중심이 된 것과 불교에서 공양(供養)을 올리는 이유도 이러한 의미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의식에서 음식을 전설(陳設)한다는 것은 종교적 주체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혈연으로 연결된 형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에게 금욕주의적인 종교의식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종교 생활에서는 세속생활에서 이탈하여 성스러운 생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고통스런 삶이 따르게 된다. 정상적인 종교라면 금욕과 금지, 고행의 생활이 따르게 된다. 불교의 수계식에 따르는 고통, 기독교의 금식기도, 철야기도 등에 따르는 고통의 의미를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통이란 과거의 비종교적 삶에 대한 상징적인 죽음을 나타낸다. 여인의 해산의 진통을 통해 출생이 있듯이 종교적 부활이란 중생을 위해서는 고통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소비지향적 삶을 추구하고,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위주가 되어 고통을 멀리하고 있다. 고통은 인간의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해 주며 남을 이해하는 마음과 생명을 존중시키는 마음을 갖게 한다. 반대로 고통을 멀리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해심과 인내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종교는 현대인들에게 고통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고통을 경험하는 종교의식을 통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V. 결 론 : 종교의식의 제한성과 과제

종교의식은 구속적 행위요, 교육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종교의식을 멀리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교의식이 종교

교육의 중심이요 종교교육의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종교의식은 종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이 될 수 있고 종교교육의 중요한 한 국면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현대인들에게 종교의식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재인식 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의식에서 많은 악폐가 유발되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유대교 말기의 종교의식은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였으며, 중세 카톨릭의 종교의식도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것이 되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었다. 현대의 일부 사이비 불교에서도 칠성당을 세워 육식(肉食)을 차려 놓고 제사를 드린다거나 무당이 부처를 모셔 놓고 굿을 하는 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유사종교에서 종교의식을 도구로 하여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종교의식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종교의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종교의식은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지 내용 자체가 아닌 것이다. 종교의 내용은 사랑, 자비, 인 등이다. 종교의식에서 이러한 종교의 내용보다도 내용을 담는 형식을 더 중요시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며 미신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가 유대교의 종교의식을 규탄하고 그 종교의식을 담당했던 제사장 그릇을 “외식(外飾)하는 자”라고 규탄했던 것도 그들의 종교의식 안에 사랑과 자비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성경 마가복음 2장 27절)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의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구속적 행위요 해방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종교의식이 이데올로기화되어서는 안된다. 하비 콕스는 제의가 이데올로기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 제의가 타락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Cox. 1977: 119). 종교의 본질적 기능은 인간의 구원 즉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식도 인간의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의식이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속박하는 도구가 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예수도 구약의 의식중심의 예배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종교개혁자들도 중세 카톨릭의 성례전

중심의 미사를 비판했던 것이다. 종교의식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과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종교의식은 공동체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 웨스터 호프는 종교의식을 공동체의 생활 양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며 “의식생활이나 제의생활이 공동체의 자기 이해와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전승해 준다”(Westerhoff III 1976: 56)고 주장했다. 종교의식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행위이다. 종교의식은 어떤 절대자와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시켜 주면서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삶의 방식을 공유하게 한다. 하비 콕스는 “제의가 집단의 공유가 되지 않거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파생되지 않고 그것이 단독적 소유가 되거나 일부사람의 소유가 될 때에는 밀의적인 것이 된다”(Cox. 1977: 120)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의식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종교의식에서 내용보다도 형식과 절차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다 보면 종교의식에 상용된 매개물이 실체화 될 위험이 있게 된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했던 상징들이 실체화되므로 물질적인 것이 신적인 몸이 되었다. 이를테면 성례전에서 사용된 밀떡은 예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 자체로 변하게 되었다. 종교의식에서 사용된 물질은 어디까지나 종교의 내용인 진리, 사랑, 자비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매개물이 실체화되므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종교의식은 의도되거나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학교형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얻는 교육적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교의식은 어떤 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標識)이다.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종교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신앙을 갖게 하고, 공동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갖게 한다.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는 참다운 종교적 인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종교적으로는 선교와 교육적 차원의 역할을 한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종교의식을 중심한 생활을 이해하게 하고 현재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자신을 평가하게 해야한다. 종교교육 지도자는 지금 행하고 있는 종교의식을 평가하며 의미있고 새로운 종교의식을 개발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식이 종교교육의 최고 최선의 목표이거나 종교교육의 방법은 아니다. 종교교육의 보충적 방법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현대의 기계 문명 안에서 개인주의적인 삶과 이기적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을 의미있게 이끌어 주고 공동체적 인간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 즉 인간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

〈 참 고 문 헌 〉

- 송기득(1984). 인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은준관(1982). 어떻게-기독교 교육의 방법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 이은봉(1992). 종교와 상징. 서울: 세계일보.
- 이재영(1989). 심정교육론 연구. 서울: 성화사.
- 정진홍(1985). 종교학 서설. 서울: 전망사.
- 정진홍(1992). 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서당.
- Browning Robert & Reed Roy(1985). *The sacrament in religious education and Liturgy*.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Inc.
- Cox, Harvey(1977). *The feast of fools*. 김천배 역. 바보제. 서울: 현대사상사
- Durkheim, E.(1915).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 by Josheph Ward Swain. London: George Allen.
- Eliade, Mircea(1987). *The sacred & the profane*. tr. by Willard Trask. New York: HBJ, Publisher.
- Eliade, Mircea(1991). *Image and symbol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tin, Gehard(1973). *Fest und alltag*. 김문환 역. 축제와 일상. 서울: 한국신학 연구소.
- Seymour Jack et al.(1983). *Contemporary approaches christian education*. Tennessee: Aringdon Press.
- Tillich, Paul(1964). *Theology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Westerhoff III, John(1976).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